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울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역대기하권 36:14-16, 19-23 제2독서 에페소서 2:4-10 복음 요한 3:14-21

◎말씀 < 하느님은 빛이 맞습니다 >

하느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들이나 교회의 유명한 성인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느님 체험에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면서 부터입니다. 내가 하는 심리치료는 대부분의 시간은 눈을 감게 하고 그 사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머리가 아파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하는 신체적으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생생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상상해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소위 '내면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직면하고 해소하는 작업들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치유와 영성적 성장을 주관하고 진행시키는 어떤 주체가 있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치유하는 주체는 누구 혹은 무엇 일까요? 나는 단연코 하느님이라 확신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거주하시는 하느님, 즉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들 중에 가히 하느님의 작용하심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미지들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강렬한 '광명 현상'입니다. 나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 6명 정도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주 강렬한 빛의 현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빛과 함께 뜨거운 열기도 함께 느껴 걸뚫을 벗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험하는 빛은 황홀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빛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빛입니다. 나는 그 빛이 마음의 상처와 죄로 인해 그동안 억압되고 갇혀 있었던 성령의 기운이 빛의 형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하느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하느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성경적 표현이 그저 뜬구름 잡는 관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느님은 빛이 맞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3월 13일(화)	사순 제4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5,520.00 \$ 1,141.00
3월 14일(수)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322.00 \$ 165.00
3월 15일(목)	사순 제4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기 부 금	\$ 102.00 \$ 0.00
3월 16일(금)	사순 제4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0.00 \$ 0.00
3월 17일(토)	사순 제4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7,250.00
3월 18일(일)	사순 제5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4명 성인: 176명

교무금봉헌자
 이나숙.손명화(1-12월)정진욱.허윤정.원승남.김옥륜.윤태욱.이종만.엄규홍.서희석(3-4월)장영수(1-4월)정행순.서량.이상일.심은희(1-3월)김팔봉(1-2월)김종순(4월)김선식.윤재경.김규철.이상인.류승교.구준모.이재덕.김상돈.김운태.남필레.최이주.허형.백정심.김병준.박용호.장신자.김길록.박병수.김영숙(3월)권영일.안병훈.이재성.안선미(2월)최원숙(1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 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죄와 용서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참회와 속죄로 부활을 준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그분의 희생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우리는 성찰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그저 ‘죄인’일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은 피하고 싶지만 멀리 있지 않고,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을 갖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함’,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이겠지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1849항)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죄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누가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듯합니다. 죄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죄지은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줌으로써 정의의 세우는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세상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방식이겠지요. 하지만 신앙인의 시선에서 ‘죄’를 생각할 때는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먼저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의 용서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느님께 돌아섰을 때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은 분명하지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작은 죄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면 더욱이, 작은 잘못과 유혹이라도 다시금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고해성사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은혜로운 순간임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닦아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청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황애다/원정은.카타리나/성낙순.안나 백정심.막달레나/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 황순이.마리아/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 신용경.그레고리오/엄모니카/배미성.오틀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덕빈.데레사의 영혼	송돈희.요셉			
연	박우돈.요셉의 영혼	박재례.마리아			

간 장 종 지	<p>◎ 정원 ◎</p> <p>시각.장애인학교의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까?” “흔히 우리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은교 클라라.시인/김복태 사도요한.화가)</p>	
------------------	--	---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Kim' s Pro Handymen 주택수리일체.무료견적 수리비용 절감 5810 Shadow Creek Rd. Sacramento CA,95841 김광열 (510)789-7876 kimkwangyeo152@gmail.com</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	---	---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	--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	---	--

--	--	--	--

